

#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삼체>의 서사 전략에 관한 연구

박상완\*

1. 들어가며
2. 캐릭터 응축과 정형화, 갈등 구도의 이분화
3. 국가적 정치성의 약화와 전통적 윤리의 강화
4. 서구 중심적 기획과 넷플릭스의 글로벌 전략
5. 나가며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삼체>가 동명의 원작 소설을 성공적으로 재창조했다는 관점에서 그 변주 방식과 주제적 의미, 파생 효과에 대해 논구한 글이다.

먼저 <삼체>는 방대한 시공간에 산포되어있던 원작의 인물들을 현재 상호 관련되는 인물들로 재편한다. 이 과정에서 캐릭터는 정형화되고 구성은 단순명료해지며 갈등 구도는 인류와 외계인, 우리와 타자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재구성된다. 이는 복잡한 원작의 이야기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청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대중 친화적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각색 방향성에 따라 주제적 의미 또한 원작과 달라진다.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는 국가/조직보다 개인을 강조함으로써 원작에서 제기되었던 현실의 중국 관련 논란을 피해간다. 다음 윤리적 측면에서는 모성, 사

\*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시간강사

량, 희생과 같은 도덕 윤리를 서사의 원동력으로 삼아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한다. 정치성을 약화시키는 대신 전통적 윤리를 부각하는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전 세계 시청자에게 보편적으로 소구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읽힌다.

하지만 <삼체>의 이러한 서사 전략은 다른 측면에서 재론될 수도 있다. 캐릭터 재편 과정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하는 시도가 이뤄졌지만 그 속에는 서구 중심 세계 질서를 회복하려는 욕망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과학 기술의 이상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인간성에 대한 천착보다 근대적 진보주의 세계관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삼체>의 서구 중심적 기획은 글로벌 콘텐츠의 본질적 속성과 관련해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삼체>, 넷플릭스, 드라마, 정치적 올바름, 글로벌, 정치성, 윤리, 각색)

## 1. 들어가며

2024년 2월 6일 세계 최대의 글로벌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당해 주요 라인업을 공개했다.<sup>1)</sup> <오징어 게임 2>, <지옥 2>, <아케인 2> 등 성공한 전작의 후속작은 물론이고 <더 에이트 쇼>, <살인자o난감>, <땀줄> 등 새로운 작품도 대거 예고되었는데, 그중 눈길을 끈 작품 중 하나가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삼체>(3 BODY PROBLEM)<sup>2)</sup>였다. 아시아인 최초로 휴고상을 수상할 정도로 평단과 대중의 호평을 받았고 방대한 스케일과 시공을 초월하는 상상력이

1) 최윤나, <‘오징어 게임2’→‘지옥2’·‘전,란’…2024 넷플릭스 라인업 공개>, 『동아닷컴』, 2024.02.06., <https://v.daum.net/v/20240206091128451> (검색일: 2024.08.13.)

2) 극본 데이비드 베니오프 외, 연출 앤드루 스탠튼 외, 총 8회, 2024.03.31. 공개.

돋보이는 한편 문화대혁명을 위시한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적나라하게 그린 동명의 원작 소설<sup>3)</sup>이 과연 어떻게 각색될 것인지와 관련해 <삼체>는 공개 전부터 많은 관심을 일으켰다. 공개 이후 <삼체>는 전문가와 대중 모두에게서 호평을 받았고 넷플릭스는 시즌 2와 3의 제작을 일찌감치 확정해 발표했다.<sup>4)</sup>

<삼체>는 표면적으로는 유명 원작 소설을 적절하게 영상화한, 무수히 많은 각색 사례 중 하나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존의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흥미로운 지점들이 존재한다. 먼저 현실적인 맥락이 있다. 중국의 과거사 문제는 물론이고 미중 패권 다툼이 심화되는 국제 정세, 원작의 중국 민족주의 논란, 넷플릭스의 중국 미서비스 상황 등 현실의 정치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작품 자체의 특성도 있다. 원작은 문자이기에 가능한 방대한 시공간적 배경, 특유의 구성과 서술 방식, 어느 하나로 귀결되지 않는 주제 의식, 현재로서는 상상만 가능한 과학기술 등이 두드러지는 작품이기 때문에 시각화/영상화가 용이하지 않다는 난점이 있다. 아울러 드라마화된 또 다른 사례<sup>5)</sup>가 근자에 있었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3) 소설 <삼체>는 중국의 SF작가 류츠신이 2006년 잡지에 연재를 시작하여 2008년부터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한국에서는 출판사 단숨에서 2013년 1부 '삼체문제', 2016년 2부 '암흑의 숲', 2019년 3부 '사신의 영생'이 출간되었고, 2020년 출판사 자음과 모음에서 재출간되었다. 본고에서는 자음과 모음 개정판과 <삼체> 영상물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논의의 편의를 위해 소설 <삼체>를 '원작'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를 '<삼체>'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4) Loree Seitz, '<3 Body Problem' to End With Season 3 on Netflix', 『THE WRAP』, 2024.05.31., <https://www.thewrap.com/3-body-problem-ending-season-3-netflix> (검색일: 2024.08.13.)

5) 원작은 2023년 중국에서 30부작 드라마로 만들어진 바가 있다. 원작을 과감하게 변형시킨 넷플릭스 <삼체>와 다르게 이 작품은 일부 상황만 제외하면 원작 1부를 거의 있는 그대로 영상화했다.

그런 점에서 <삼체>는 기본 설정인 삼체문제<sup>6)</sup>처럼 수많은 입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갈수록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그만큼 예술 창작의 방향성과 고층 또한 다변화/심화되고 있는 현 대중 영상예술 시대에 각색의 난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한 <삼체>의 서사 전략은 여러 시사점을 남긴다. 원작의 계승과 변주, 그리고 재창조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스토리텔링의 방향성을 짚을 수 있고, 현실 논리의 극복 방식을 통해 글로벌 OTT 플랫폼으로서 넷플릭스의 지향점을 파악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여러 전략적인 시도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대중예술의 존재 방식과 의의에 대해서도 고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술적 가치를 검증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삼체>가 원작을 어떻게 변주했는지, 그리고 그 의미와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삼체>의 원작 변화 요소는 너무나도 많으므로 이를 모두 살피지 않고 분명한 의미와 의도를 지니고 있는 변화만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먼저 캐릭터, 서술 방식, 구성과 구조 등의 변화 양상을 살펴 기본적인 논거를 마련하고, 그 의미를 주제적 측면에서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서사 전략의 이면과 전망에 대해 논구하도록 하겠다.

이는 원작에 대한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한 방법론이다. 원작에 대한 연구는 중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국내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먼저 작가론적 연구<sup>7)</sup>가 있다.

6) 삼체문제란 세 물체 간의 중력이 상호 작용할 때 그 궤도를 파악하는 것을 뜻하고, 19세기 후반 수학자 앙리 푸앵카레에 의해 일반해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삼체> 시리즈에서는 3개의 태양을 둔 삼체 행성이 불규칙적으로 운행해 문명이 존재할 수 있는 안정된 시기인 항세기와 문명을 파괴할 정도의 자연재해가 닥치는 난세기가 예측할 수 없이 도래한다는 것으로 소재화되었다.

7) 박정영, 「류츠신의 과학소설 『삼체』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서묘연, 「류츠신의 『삼체』와 배명훈의 『신의 궤도』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류츠신의 삶, 사상, 작품 세계, 중국 SF소설계 동향 등을 통해 작품을 분석한 것으로, 원작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 연구이다. 다음으로 작품의 주제적 측면을 살핀 연구들이 있다. 박민호는 첫 논문<sup>8)</sup>에서 원작이 인류의 근대사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고, 윤리에 대한 회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초국가적 주권자로서 리바이어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보았고, 다음 논문<sup>9)</sup>에서는 3부를 중심으로 하여 전체주의의 반대급부적 가능성을 추가로 언급했다. 정치적 의미망에 초점을 맞춘 박민호와 달리 손주연<sup>10)</sup>은 기술 발전과 윤리 문제에 집중, 원작이 궁극적으로는 윤리와 인간(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평가했고, 박정훈<sup>11)</sup>은 원작이 허무에 의한 가치 전도 및 새로운 가치의 도래라는 니힐리즘 인식이 단계적으로 그려진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현실 상황과 관련해 작품을 분석한 연구도 있는데, 박남용<sup>12)</sup>은 최근 중국 SF소설이 중국 주도의 우주 프로젝트를 선전한다고 지적하면서 원작은 이를 지구공동운명체라는 개념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했고, 김미정<sup>13)</sup>은 원작이 전체주의/중국적인 측면과 자유민주주의/초중국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작품이라고 분석했다.

8) 박민호(a), 「류츠신의 《삼체》를 통해 본 정치적 알레고리와 윤리의 아이러니」, 『중국문학연구』 제72집, 한국중문학회, 2018, 123-141쪽.

9) 박민호(b), 「류츠신 『삼체』 속 정치적 의미망」, 『한중언어문화연구』 제69집, 한국중국언어문화연구회, 2023, 237-255쪽.

10) 손주연, 「중국 SF의 포스트휴머니즘적 문학 상상 - 류츠신 『삼체』를 중심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 제65집, 한국중국언어문화연구회, 2022, 233-260쪽.

11) 박정훈, 「류츠신 『삼체』의 니힐리즘적 세계관 고찰」, 『중국연구』 제86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21, 25-42쪽.

12) 박남용, 「중국 SF소설의 과학기술과 문학적 상상 연구」, 『중국인문과학』 제80권, 중국인문학회, 2022, 189-208쪽.

13) 김미정, 「류츠신의 《삼체》 읽기 - '과학'과 '문학'의 상호관계」, 『중국어문학』 제89권, 영남중국어문화회, 2022, 121-148쪽.

이상 원작에 대한 선행연구는 전반적으로 작품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경향이 있다. 본고의 논지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선행연구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삼체>가 큰 틀에서는 원작을 따르되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매우 차별화된다는 점이다. 즉 선행연구에서 주로 이뤄진 작가적/주제적 측면과 더불어 <삼체>만의 서사 구성 방식 또한 정치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의도적으로 변주된 캐릭터, 구조, 서술 방식, 주제 의식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이다.

주지하듯 원작은 SF장르의 일반적인 속성인 거대한 스케일, 정교하고 과학적 상상력이 돋보이면서도 세계 내 존재로서의 인간의 실존적 고민, 윤리, 삶과 죽음 등을 다채롭고 세심하게 묘사<sup>14)</sup>한 뛰어난 작품이다. 하지만 작품 자체의 특성과 그것을 둘러싼 현실 맥락으로 인해 전 세계의 다양한 시청자에게 소구되어야 하는 글로벌 콘텐츠로서는 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삼체>의 서사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작품 고유의 가치가 발견되고 대중영상예술시대 스토리텔링의 또 다른 가능성이 타진되는 동시에 글로벌 문화콘텐츠의 속성이 재구되기를 기대한다.

## 2. 캐릭터 응축과 정형화, 갈등 구도의 이분화

<삼체> 원작은 지구에서 4광년 떨어진 고등 문명인 삼체 세계가 지구 세계와 접촉한 뒤 지구를 점령하기 위해 출발한 삼체 함대가 400년 후에 도착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혼란이 시작되는 현재 시점의 1부 '삼체문제', 지구의 여러 대응 방식이 그려지고 100여년 뒤 삼체 문명과의 일시적 휴

---

14) 박민호(a), 앞의 글, 126쪽.

전이 이뤄지는 2부 '암흑의 숲', 평화가 깨지고 수백 년에 걸쳐 삼체 세계와 지구가 초고위 문명에 의해 멸망한 뒤 생존자들이 시공을 초월해 새로운 우주의 가능성을 찾는 3부 '사신의 영생'으로 이루어져있다. 간단히 요약한 줄거리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작은 20세기 중반부터 수천만 년 후의 먼 미래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방대한 서사시와도 같은 작품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작의 거대한 스케일은 영상화 각색 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소설이 문자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공간의 구축 및 묘사가 자유로운 반면 드라마와 같은 영상예술에서는 시청각 이미지가 기본 언어이고 그만큼 직접적이면서도 제한적인 묘사가 요구되며 물리적인 시청 시간의 제약까지 존재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기본 문법의 차이로 인해 드라마가 소설보다 수용자의 감성을 더 자극할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sup>15)</sup> 기본적으로 소설에서 드라마, 문자에서 영상으로의 각색은 상당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하는 재창조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삼체>에서 원작 재창조 작업은 캐릭터에서부터 시작된다. 먼저 원작의 주인공을 포함한 인물들은 다음과 같이 옥스퍼드대 5인방이라 불리는 캐릭터로 각색되었다.

---

15) 시청자의 이목을 끄는 스펙터클한 연출이 대표적이다. <삼체>에서도 삼체 문명 이해의 근간이 되는 VR게임, 베라 예의 투신자살, 심판일호에 대한 공격, 지자에 의한 우주의 깜빡임 등에서 영상예술의 상대적 강점인 스펙터클이 돋보인다. 특히 우주의 깜빡임의 경우 원작에서는 특수 안경을 통해야만 볼 수 있는 우주배경복사의 미세한 깜빡임이지만, <삼체>에서는 지자가 전 지구를 뒤덮어 모든 사람들이 맨눈으로도 볼 수 있는 광대한 스케일로 각색되어 시청자에게 시청각적 충격을 선사한다.



〈장면 1〉



〈장면 2〉

〈장면 1〉의 좌측 여성 ‘진청’은 원작 3부 주인공 ‘청신’을 옮긴 캐릭터다. 원작의 청신은 삼체 함대 정탐을 위한 계단 프로젝트의 창시자이고, 삼체 문명에 대한 위협의 키를 뒤희로부터 넘겨받는 2대 검잡이이며, 위협에 실패하고 초고위 문명에 의해 태양계가 멸망한 뒤 새로운 우주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우측 여성 ‘오거스티나 살라자르’(이하 오기)는 원작 1부 주인공 ‘왕묘오’를 각색한 캐릭터다. 원작의 왕묘오는 나노 기술 연구자로 자신의 연구 성과를 군에 제공, 이들이 ETO(지구 삼체 조직)의 본부인 심판일호를 공격하고 삼체 문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장면 2〉의 좌측 남성 ‘사울 듀랜드’는 원작 2부 주인공 ‘뤼지’를 옮긴 캐릭터다. 원작의 뒤희는 UN으로부터 면책자로 선발된 이후 우주의 공리와 암흑의 숲 원리를 깨달아 상호확증파괴 체계를 수립, 삼체 문명과의 휴전 상태를 마련한다. 중앙 남성 ‘윌리엄 다우닝’은 원작 3부의 ‘윈텐밍’이다. 원작의 윈텐밍은 청신을 짝사랑하는 인물로 불치병에 걸리자 인락사를 선택, 계단 프로젝트 우주선에 뇌만 실려 보내졌다가 훗날 삼체인에 의해 복원되어 초고위 문명의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알려준다. 우측 남성 ‘잭 루니’는 원작 3부의 ‘후원’이다. 원작의 후원은 윈텐밍의 친구로 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은 뒤 아이디어를 제공해준 윈텐밍에게 거금을 물려준다. 이상 〈삼체〉의 옥스퍼드대 5인방은 오기가 원작 왕묘오에 비해 비중이 커진

것을 제외하면 원작과 거의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원작의 주변 인물들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각색되었다. <삼체>에서 PDC(행성 방위 이사회)의 수장인 ‘토마스 웨이드’는 원작 1, 2부의 ‘창웨이 이쓰’, 2부의 ‘가라닌’, 3부의 동명 인물 등 여러 인물들이 합쳐진 캐릭터다. 원작에서는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여러 인물들이 각각 수행했던 역할이 하나의 인물을 통해 그려지는 것이다. 삼체 문명이 지구의 과학 발전을 방해하고 ETO와 교신하기 위해 만든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지자(智者)’도 마찬가지다. 본래 지자는 원작 1부부터 묘사되기는 하지만 3부에 이르러 서야 안드로이드화된 인물로 등장하는데, <삼체>에서는 지자가 처음부터 하나의 캐릭터로 등장한다.

이와 같이 <삼체>에서는 원작 1-3부의 여러 시간대에 등장하고 서로 관련이 없었던 인물들이 21세기 현재 같은 시간대에서 상호 관련되는 인물들로 재편된다. 그럼으로써 매우 긴 세월동안 분리되어 연표처럼 띄엄띄엄 서술되었던 원작의 사건들 역시 짧은 시간 안에서 상호 간섭되는 이야기로 재구성된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넓게 산포되어있는 캐릭터를 빚진하게 응축시키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캐릭터 재편으로부터 파생되는 주제적 의미와 균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되는 작품 내부의 변화 양상을 계속 추적하면, <삼체>가 원작 특유의 서술 방식을 변주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작은 여러 시공간에 흩어져있는 인물들에 의해 이야기가 서술되는 만큼 어떤 부분은 과감하게 건너뛰고, 특정 부분은 매우 세밀하게 묘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도약 서사’와 ‘밀집 서사’라고 하는데,<sup>16)</sup> 대체로 전자는 굵직굵직한 역사적 변화 서술 시에, 후자는 인물의 고뇌, 중대한

---

16) 박정영, 앞의 글, 23-24쪽.

사건 서술 시에 사용된다. 아울러 도약 서사 방식은 동면기술과 관련되기 때문에 원작에서도 미래가 배경인 2부 이후부터 주로 사용되고, 아직 이 부분까지 이르지 않은 <삼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삼체>는 사건의 시간적 순서를 뒤섞거나 건너뛰지 않고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발생한 순서대로 찬찬히 보여준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밀집 서사 방식은 원작 1-3부 전반에 걸쳐 빈번하게 사용된다. <삼체>가 원작 1부와 2부 초반을 배경으로 하는 만큼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원작 1부의 핵심 인물이자 모든 일의 시발점인 '예원제'다. 물리학 교수 출신이자 ETO의 설립자이기도 한 그녀는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에게 아버지를 잃고 인류애를 상실한 뒤, 태양이 전파 증폭기 역할을 한다는 발견을 통해 외계에 강력한 신호를 발사, 삼체 문명에게 지구의 존재를 알리고 침공을 요청한 인물이다. 끔찍한 역사의 피해자이자 인류의 배신자이기도 한 그녀의 심리는 원작에서 상당한 분량에 걸쳐 매우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묘사된다.

안정이 찾아오자 긴장과 공포로 억압되어있던 기억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진정한 고통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세상과 동떨어진 무릉도원 같은 레이더봉에서도 인간의 비이성적인 광기를 매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더 먼 외부 세계에서는 인간의 광기가 역사상 최고조에 달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생각은 예원제를 심각한 정신적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이 세계에 속하지 않았다. 계속된 정신적 방황이 그녀를 괴롭혔다. 가정을 이룬 후 그녀의 영혼은 오히려 돌아갈 곳을 잃었다.<sup>17)</sup>

위의 인용문은 외계로 신호를 발사하고 몇 년이 지난 후, 삼체 문명의 회

17) 류츠신, 『삼체 1부 삼체문제』, 이현아 역, 자음과모음, 2020, 304-306쪽.

신을 받기 직전 예원제의 심리가 묘사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분노, 고통, 공포, 고독 등으로 점철된 그녀의 복합적인 심리에 대한 톱진한 묘사는 1부 내내 계속 반복되고, 2부의 뒤흔, 3부의 청신처럼 거대한 역사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 고뇌할 때에도 위와 같은 밀집 서사 방식이 사용된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별도의 서술자가 존재하거나 내레이션이 사용되지 않는 이상 인물의 감정과 심리가 위와 같이 구체적/직접적으로 그려질 수 없다. 원작에서 밀집 서사로 표현되었던 위 상황은 <삼체>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려진다.



<장면 3>



<장면 4>

앞의 인용문 시기에 해당하는 <삼체> 2회의 장면들이다. 아무도 없는 관측실에서 어둠을, 태양이 저물고 있는 하늘을 노려보는 예원제의 강렬한 눈빛을 통해 그녀의 고뇌가 간접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청각 이미지를 활용한 은유의 임의성이다. 시청각 은유에서는 기표가 기의를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는 위와 같은 장면을 통해 예원제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상상해야 한다. 물론 시청자가 능동성을 발휘한다면 더 많은 의미를 산출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원작에서 직접적/구체적으로 묘사된 심리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즉 원작 중요 인물의 복합적인 심리가 드라마에서는 간접적으로 해석되고 자의적으로 수용되는 만큼 오독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난점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삼체>의 서사 구성 방식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예원제를 다시 예로 들어보면, 원작에서 그녀의 과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문화대혁명 당시 아버지 사망 → ②내몽골 별목장으로 하방 → ③홍안 기지에 들어감 → ④우주로 신호 발사 → ⑤삼체의 회신에 답신 → ⑥상사와 남편을 살해 → ⑦딸 출산 → ⑧대학으로 복귀 → ⑨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 만남 → ⑩환경운동가 에반스 만남 → ⑪ETO 창설

위는 원작에서 예원제 자신의 회고 및 체포 후 진술 과정에서 전후 순서가 뒤섞여 산발적으로 서술되는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재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삼체>는 미묘하게 다르다. 일단 예원제의 과거가 별도의 회고나 진술을 통하지 않고도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차례차례 그려진다. 대신 원작 사건의 순서가 바뀌거나, 특정 사건이 발생하지 않거나,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진다. 일단 나중에 발생했던 ⑨, ⑩이 상술한 인용문과 장면들에 해당하는 ④와 ⑤사이에서 먼저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⑩이 먼저 발생하고, ⑨는 아버지를 직접 죽인 홍위병을 만나는 것으로 달라진다.<sup>18)</sup> 그리고 ⑥이 삭제되고, ⑧ 이후에 '마이크 에반스'와의 만남이 더 추가되며 예원제가 그와 사랑에 빠져 딸 '베라 예'를 낳는 것으로 달라진다.<sup>19)</sup>

18) 문화대혁명 당시 예원제의 아버지 예저타이 교수는 서구의 물리학 이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비판 대상 집회에 서게 되고 홍위병들에게 맞아 죽는다. 원작에서는 예원제가 문화대혁명의 광기가 사그라지고 대학으로 돌아온 후 당시 홍위병들 중 한 명을 만나 아버지를 직접 죽인 홍위병은 이미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반면 드라마에서는 예원제가 아버지를 직접 죽인 홍위병을 만나 자신이 한 짓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듣는다.

19) 홍안 기지에는 총책임자인 정치위원 레이즈청과 엔지니어 양웨이닝이 있다. 원작에서 예원제는 자신을 돌봐준 양웨이닝과 결혼해 딸(양둥)을 낳고, 레이즈청이 외계와 교신했다는 업적을 탈취하려 하자 그를 살해하며 그 과정에서 양웨이닝도 살해한다. 반면

이 변화 양상을 간단히 정리하면, 예원제가 삼체인의 ‘답신하지 말라’는 경고 회신<sup>20)</sup>을 받은 후 답신하기까지의 심리가 원작에서는 매우 복잡적으로 그려지는 반면 <삼체>에서는 분노라는 심리로 단순화된다는 것이다. 원작 예원제는 인류에 대한 실망, 정치에 대한 환멸, 자국 상황에 대한 분노, 세상으로부터의 도피, 물리학에 대한 애정, 우주와 독대하는 고독, 자신의 선택으로 인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희열, 내면으로의 침잠으로 인한 비논리적인 상태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한 심리에 놓여있었다.<sup>21)</sup> 하지만 <삼체>의 예원제는 지구상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에반스의 종의 공산주의 사상에 경도된 상태에서(사건 ⑩),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도 반성하지 않는 홍위병 ‘탕홍징’의 뻔뻔한 태도에 극도로 분노해(사건 ⑨) 삼체 문명에게 “와라. 우리 문명은 이미 자구력을 잃었다. 이 세계를 점령하도록 내가 돕겠다.”(2회)라고 답신한다.

이는 예원제만 놓고 보면 캐릭터의 정형화/평면화라 해도 무방하지만 보다 거시적으로 보면 <삼체>의 각색 기조가 드러나는 단초이기도 하다. 앞서 살핀 캐릭터의 재편, 즉 응축은 산발적인 이야기를 필진하게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구성 방식의 변화는 인물의 복잡성을 상쇄하고 직관적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다. 쉽게 말해 시청자가 작품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 친화적인 방향으로 각색이 이루어졌다.

---

<삼체>에서는 양웨이닝이 예원제의 업적을 가로채고, 살해 사건은 발생하지 않으며, 양웨이닝 대신 에반스가 예원제와 맺어져 딸(베라 예)이 태어난다.

20) 원작에서 예원제의 신호를 처음 받은 삼체 감청원은 지구의 안전을 위해 답신하지 말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생존을 위해 전체주의화된 자신들에 비해 지구 문명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이다(류츠신, 『삼체 1부 삼체문제』, 이현아 역, 자음과모음, 2020, 390-397쪽). 이처럼 예원제와 유사한 깊은 고독으로부터 형성된 삼체 감청원의 심리/행동은 예원제의 그것과 묘한 대비를 이루는 대목인데, <삼체>에서는 이 내용이 그려지지 않는다.

21) 박정훈, 앞의 글, 28-29쪽.

이 맥락에서 또 하나 눈여겨 볼 것은 다양한 입장, 사상 등이 공존하는 원작의 복잡성을 어느 것은 삭제하고 비슷한 것끼리는 통합해 상호 대립하는 둘로 재편하는 이분화 방식이다. 일례로 예원제와 에반스가 만든 지구 삼체 반군 ETO를 보자. 원작의 ETO는 인간 본성에 절망해 인류의 멸종을 바라는 강림파, 고등 문명인 삼체인을 통해 인류를 교화하고 삼체 세계의 한계까지도 극복하려는 구원파, 역사적 항방과는 무관하게 생존만을 추구하는 생존파로 나뉜다.<sup>22)</sup> 또한 원작 예원제는 강림파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 구원파로 전향해 강림파 에반스와 대립하고, 각 분파의 행동이 이후 사건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삼체>에서는 애초에 파별이 나뉘지 않고, 예원제는 분노로 점철된 인물로 정형화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강림파의 사상만을 보여주어 에반스와 대립하지도 않는다. 즉 다양한 입장의 지구인들이 삼체 문명에 대해 역시 다양하게 대응하는 양상을 다각적으로 보여주는 원작에 비해 <삼체>에서는 인류를 지키려는 입장(옥스퍼드대 5인방, PDC)과 인류 말살을 바라는 입장(ETO)만이 그려진다.

원작에서 복합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삼체의 공격도 마찬가지다. 원작에서 삼체인은 직접적인 공격과 이주라는 목적을 지닌 함대와는 별개로 과학 기술의 부작용을 이용해 대중의 환멸을 유발하는 염색, 초자연적 현상을 보여주어 과학적 사유를 퇴행시키는 기적, 기초과학을 말살시키는 지자 이상 세 가지 계획<sup>23)</sup>을 추진한다.<sup>24)</sup> 하지만 <삼체>에서는 그중에서

22) 류츠신, 앞의 책, 358-361쪽.

23) 위의 책, 407-408쪽.

24) 지구에 비해 월등히 발전한 삼체인이 이러한 다층적인 계획을 세운 이유는 함대가 도착하기까지의 400년 사이에 지구 문명이 자신들의 수준을 초월해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초과학이 말살된 후에도 인류는 나름대로 발전해 100여년 후에는 우주 함대를 꾸릴 정도가 된다. 하지만 그 발전정도가 너무나도 미미해서

지자 프로젝트만 그려지고, 강림과 암살자 ‘타티아나’라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해 삼체에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을 직접 제거하는 사건이 그려진다.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속성이 있는 원작의 다층적인 공격이 테러를 연상시키는 직접적 타격으로 변화해 삼체 문명의 잔인함이 부각되는 것이다.<sup>25)</sup>

그 결과 <삼체>는 아(我)와 타(他)의 대립 서사로 재구성된다. 이때 아와 타를 구분하는 기준은 전적으로 지구, 인류, 작금의 도덕 윤리가 된다. 원작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독해해서도 곤란하다는 평<sup>26)</sup>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래 원작은 모든 것을 시공과 윤리마저 초월한 우주적 관점에서 관조하는 작품이다. 그렇지만 <삼체>는 캐릭터를 재편하고 서사 구성에 변화를 줌으로써 인류를 말살하려는 ‘타자 삼체’와 생존하려는 ‘우리 인류’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낸다. 원작에서는 예원제의 행동에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데 비해 <삼체>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도 그래서이다. <삼체>의 예원제는 원한에 의해 인류 전체를 증오하게 되는 극단적인 테러리스트의 형상을 띤다. 그것이 사건 순서의 재배치를 통해, 즉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을 통해 개연성 있게 그려지기는 하지만, 시청자는 우리 인류의 입장에서 작품을 수용하기 때문에 예원제에 대한 감정적 동일시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물론 그만큼 삼체에 맞서는 주인공들과 PDC의 초윤리적/초법적 행보에는 강력한 정당성이 부여되고 그 영웅적 활약이 시청자에게는 재미를 선사하게 된다.

---

삼체의 탐사정 1대에 의해 모두 궤멸된다.

25) 삼체 문명이 인류에게 자신들의 정체를 공개하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원작에서는 예반스가 남긴 교신 기록을 보는 사람들에게만 “너희는 벌레다.”라는 문구를 잠시 보여 주지만, <삼체>에서는 지구상 모든 전자매체를 통해 같은 문구가 전달된다. 전 인류의 입장에서 느끼는 거대한 코즈믹 호러가 강조되는 것이다.

26) 박민호(b), 앞의 글, 252쪽.

정리하면 <삼체>의 원작 재창조 작업은 산포된 캐릭터를 응축하고, 입체적인 측면을 정형화하며, 복합적인 갈등 구도를 이분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이러한 방식 자체는 옳고 그림과 같은 가치 평가를 내릴 수 없다. 드라마와 같은 대중예술에서는 흥행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시청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이러한 대중 친화적 시도는 그 자체가 대중예술의 한 속성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형상화되는 주제적 의미, 그리고 효과와 성과라 할 수 있다.

### 3. 국가적 정치성의 약화와 전통적 윤리의 강화

원작은 현실과 상상력이 공존하는 1부, 여러 사고 실험이 그려지는 2, 3부<sup>27)</sup>를 통해 현실의 정치 체제부터 가상의 정치 체제까지, 개인의 윤리부터 집단의 윤리까지 매우 광범위한 주제 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처럼 원작의 주제적 측면이 크게 정치적 의미망과 윤리적 화두로 양분된다는 점을 고려해 2장에서 살핀 변화를 거친 <삼체>가 어떤 정치관과 윤리관을 형상화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정치관에 대한 결론을 다소 앞당겨 이야기하면 <삼체>는 정치적 의미망이 원작에 비해 상당히 협소해지는 양상을 띤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했듯이 원작 자체는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 입장만을 보여주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때의 정치적이라는 것은 크게 중국을 위시한 국가 간 현실 정치 맥락과 다

---

27) 서묘연, 앞의 글, 37-40쪽.

양한 정치 형태를 통해 암시되는 정치 철학 문제로 양분되는데, 후자는 <삼체>에서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는다. 초국가적 주권자의 필요성<sup>28)</sup>과 그 반대급부<sup>29)</sup>에 대한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래 원작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가상의 미래의 여러 의결 형태를 통해 다양한 정치 형태 및 철학에 대해 사유하도록 한다. 그렇지만 <삼체>에서는 이미 PDC라는 초국가적 조직이 존재하고 있고, 웨이드라는 강력한 추진력의 수장이 있으며, 무엇보다 타자인 삼체가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 초국가적 조직의 행보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sup>30)</sup> 모두를 위한 필요악으로서 전체주의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그만큼 정치 철학적 사유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원작의 현실 정치 맥락의 문제는 <삼체>에서 여러 흥미로운 지점으로 파생된다. 먼저 자국의 문화를 자국 스스로 파괴하고 공식 사망자만 170만 명에 달하는, 원작에서도 전문가에게나 대중에게나 가장 큰 논란<sup>31)</sup>이 되었던 문화대혁명부터 보자.

28) 박민호(a), 앞의 글, 137쪽.

29) 박민호(b), 앞의 글, 249쪽.

30) 원작에서는 삼체인의 침공이 알려진 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후신으로 PDC가 설립되고, 이들의 방침에 대한 사람들의 찬성/반대, 대응책의 긍정적/부정적 상황이 다각적으로 그려지면서 독자로 하여금 초국가적 조직의 존재성에 대한 성찰을 유도한다. 반면 <삼체>에서는 후술할 파나마 작전 당시 심판일호에 타고 있는 부모가 인류의 배신자이니 아이들도 모두 죽여도 된다는 방침에서 드러나듯 PDC와 웨이드의 초법적 행보와 그에 대한 무반대의 상황이 두드러진다.

31) 김미정, 앞의 글, 123-124쪽.



〈장면 5〉



〈장면 6〉

2023년 6월 넷플릭스는 공식 티저 예고편의 〈장면 5〉와 같은 장면들을 통해 문화대혁명의 광기를 가감 없이 담을 것이라 예고했고, 실제로 〈삼체〉는 〈장면 6〉처럼 문화대혁명 상황을 1회 첫 시퀀스로 배치해 강렬하게 시작된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다. 중국인에게도, 외국인에게도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사건<sup>32)</sup>을 피하지 않음으로써 원작의 ‘중국적’인 것에 대한 여러 논란 역시 정면 돌파할 것이 예상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삼체〉는 현실의 국가 간 정치 맥락에서의 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초에 논란의 빌미 자체를 제거한다.

일단 캐릭터 재편 과정에서의 국적 변화가 있다. 원작에서는 방대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심인물들이 모두 중국인이다. 하지만 〈삼체〉에서는 미국인(사울), 영국인(윌리엄, 잭), 외국 이민자(오기), 중국 출신 이주민(진청)으로 국적이 다변화된다. 원작이 좋게 보면 중국인(왕야오, 뤼지, 청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 반대로 나쁘게 보면 중국인(예원제)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인 중심이어서 중국적인 것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에 비해 〈삼체〉는 국적의 다변화

32) 문화대혁명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의 인식과 달리 최근 중국에서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현 시진핑 주석은 문화대혁명 당시 아버지가 하방되어 고초를 겪었고 그만큼 문화대혁명을 잘못된 역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간단히 말해 최근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이 다루기 쉬운 소재는 아니지만 과거처럼 절대적으로 금기시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를 통해 그런 해석의 여지를 처음부터 차단해버리는 것이다. 공도 있고 과도 있고,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 원작의 가치 평가 요소가 다국적 전 세계인의 것으로 재편됨으로써 특정 국가에 대한 논쟁적 해석 가능성이 원천 봉쇄된다는 것은 <삼체>의 정치관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다음으로 2장에서 언급한 사건 변화가 있다. 각주 19에서 언급했듯이 원작에서는 ‘레이즈칭’이 예원제의 업적을 가로채려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처럼 외계 문명 탐사라는 국가적 기밀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이자 중국공산당 정치위원인 레이즈칭을 부패한 인물로 설정한 것은 중국의 과거와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작가적 의도라 할 것이다. 하지만 <삼체>에서는 엔지니어인 ‘양웨이닝’이 예원제의 업적을 가로채고 레이즈칭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 이때 양웨이닝의 행동은 뚜렷한 동기가 그려지지 않지만 예원제와 마찬가지로 과학자라는 점에서 학문적 질서와 인정/출세 욕망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즉 원작과 달리 <삼체>에서는 이 상황이 개인의 일탈에 의한 악행으로 변화하고, 조직/집단의 부정적인 모습은 일절 거론되지 않는다.

이는 문화대혁명에 대한 평가에서도 재확인된다. 원작에서 예원제가 만나는 당시의 다른 홍위병은 참회하지 않느냐는 예원제의 질문에 “그럼 우리한테는 누가 참회하지?”, “지금은 새로운 시대야.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 모두 깨끗이 잊었다고!”<sup>33)</sup>라고 한다. 역사는 거시적 측면에서 자신을 인식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반면 <삼체>에서 예원제가 만난 당사자 홍위병 탕홍징은 같은 질문에 대해 “내가 잃은 건 누가 속죄해? 난 그저 어린애였는데.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던데, 그래야지. 학자 딸이니 오죽 똑똑하겠어. 네 머리가 널 구한 거야. 안

---

33) 류츠신, 앞의 책, 338-341쪽.

그랬으면 나랑 똑같이 됐을 텐데. …오늘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그 학자 새끼를 밀 베듯 싹둑 베버릴 거야.”(2회)라고 말한다. 광기어린 분노와 개인적 질시의 심리가 한층 강조되면서 문화대혁명에 대한 개인적/미시적 측면에서의 인식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2장에서 언급했듯 〈삼체〉에서는 이 만남 직후 예원제가 고뇌를 끝내고 삼체에 답신을 한다. 즉 문화대혁명이라는 광기의 역사와 조직/집단의 문제로부터 인류의 위협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광신도와 같았던 사람들과 그로 인한 개인의 분노가 인류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의미가 만들어진다.<sup>34)</sup>

결국 〈삼체〉는 원작에서 그려진 중국이라는 국가, 혹은 중국공산당이라는 조직/집단의 부패를 삭제하거나, 이들의 치부로 비춰질 수 있는 과거사를 개인의 차원으로 환원시킴으로써 현실 정치 맥락에서 ‘중국적’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는 논란거리를 남겨두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향후 시준을 두고 볼 문제지만 현재까지의 〈삼체〉는 중국적인 것과 초중국적인 것이 공존한다는 원작에 대한 평가<sup>35)</sup>가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원작에서 두드러진 중국 관련 논란은 피해갔지만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하도록 하겠다.

한편 윤리관은 어떨까. 원작은 각종 사고 실험이 그려지는 2, 3부에서 윤리적 화두가 주로 던져진다. 하지만 〈삼체〉는 원작 3부에 등장하는 계단 프로젝트를 앞당겨 그린 것을 제외하면 아직 그에 미치지 않은 상태다. 즉 거시적이고 다각적이며 우주적인 차원에서 윤리 자체에 대해 회의하는 대신 지금 현재 우리의 윤리적 상황을 주로 다룬다. 그런 점에서 다음 몇 가

34) 원작에서는 홍위병과의 만남이 삼체와의 교신이 일단락된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예원제가 인류를 배신한 자신의 선택에 대해 고뇌하던 중 그에 대해 확신을 갖고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35) 김미정, 앞의 글, 140쪽.

지 변화 지점들은 <삼체>의 윤리관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들이다.

먼저 예원제의 딸 베라 예(원작 양동)의 죽음이 있다. 원작에서 기초과학을 무너뜨리려는 지자에 의해 입자가속기 실험 결과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과학자로서도, 딸로서도 신념이 무너진 양동은 깊은 존재론적 고민 끝에 자살한다.<sup>36)</sup> 반면 <삼체>에서는 베라 예가 어머니 예원제가 벌인 짓, 즉 인류 배신을 알고 충격을 받아 자살했다는 것이 강조되고(6, 7회) 존재론적 고민은 전혀 그려지지 않는다. 우주, 과학, 생명, 존재, 자아와 관련된 형이상학적인 이유가 어머니에 대한 실망이라는 미시적인 이유로 변경된 것이다.

이런 딸에 대한 예원제의 심리도 중요하다. 원작에서 예원제는 자살한 양동에 대해서 가끔 언급하지만 그것은 모두 그녀가 진실을 감추고 있는 상태, 즉 작중 인물들과 독자를 기만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언사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이를 제외하면 예원제의 양동에 대한 심리는 작품 전체에서 딱 1차례만 묘사되는데, 정체를 드러낸 후 양동이 왜 죽은 것이냐는 왕야오의 질문에 평정심이 살짝 흔들리는 것이 그것이다.<sup>37)</sup> 원작에서는 예원제의 딸에 대한 심리가 거의 드러나지 않고, 보기에 따라서는 애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뜻이다.<sup>38)</sup> <삼체>도 이

36) 원작 1부에서 양동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모두 하나의 결과를 향하고 있다. 물리학은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것은 알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류츠신, 앞의 책, 21쪽)라는 유서를 남겨 과학자로서의 신념이 무너져 자살한 것으로만 그려지지만, 3부에서는 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반쪽 영혼인) 이 둘을 합치면 온전한 하나의 영혼이 된다.”(류츠신, 『삼체 3부 사신의 영생』, 허유영 역, 자음과 모음, 2020, 33쪽)는 내용이 추가되어 존재론적 고민 끝에 자살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37) “이 질문에 예원제는 몇 초 동안 침묵했다. 왕야오는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어두워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조금 전 화제로 돌아왔다.”(류츠신, 『삼체 1부 삼체문제』, 313쪽)

38) 원작 예원제는 문화대혁명, 하방, 고문, 고립 등으로 인해 감정이 완전히 메말라버린

와 유사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장면 7〉



〈장면 8〉

〈장면 7〉은 ETO가 삼체 기술을 전수받아 만든 VR게임에서 진청이 난 세기에 탈수되었다가 항세기에 되살아난 NPC 추종자를 반기는 상황(2회)이고, 〈장면 8〉은 게임 속 추종자가 예원제의 딸 베라 예의 어린 시절 모습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상황(7회)이다. 이처럼 딸에 대한 심리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원작과 달리 〈삼체〉에서는 평생 딸을 속였지만 사실은 아끼고 사랑하며 그리워하기까지 했다는 예원제의 심리가 은유적으로 형상화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원제의 사랑에 의해 만들어진 추종자의 극적 기능이다. 본래 원작 청신은 좋게 말하면 따뜻하고 순수한 인물, 나쁘게 말하면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인물로 묘사되고, 검잡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일반 독자에게는 공분을 일으키는 인물이다.<sup>39)</sup> 이런 청신의 캐릭터성은

---

상태에서 양웨이닝을 사랑해서라기보다 자신을 감싸고 돌봐준 것에 대한 감사의 차원에서 결혼한다(“양웨이닝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은 보답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까맣게 타버려 사랑의 불꽃을 다시 피우기는 어려웠다.” (류츠신, 『삼체 1부 삼체문제』, 306쪽)). 그래서 레이즈청을 살해할 때 남편이 방해가 되자 아무 망설임 없이 함께 살해할 수 있었고, 딸에 대한 애정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 것도 이러한 무감정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39) 2부 주인공 뤼지는 예원제의 조언을 통해 우주에 또 다른 초고위 문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착안, 삼체인에게 지구를 공격하면 지구와 삼체 행성의 좌표 신호를

게임 속 추종자를 불쌍히 여기는 위 장면들을 통해 계승/강화된다. 과학자인 진청은 추종자가 실존 인간이 아니라 NPC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녀를 살리기 위해 열정적으로 게임에 파고든다. 이처럼 추종자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진청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고 실제 시청자에게는 삼체 문명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다. 즉 <삼체>의 기본적인 서사는 모든 일의 시발점인 예원제, 그녀의 애정이 반영된 추종자, 그 추종자가 진청에게 부여하는 행동 동기, 이것들이 뼈대가 되어 진행된다. 인류에 대한 사명감이나 과학자로서의 책임감이 아닌 어머니/여성으로서의 모성애<sup>40)</sup>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된다는 뜻이다.

우주적 관점에서 윤리적 기준 자체에 대해 회의하게 만드는 원작이 <삼체>에서 개인의 감정과 심리로 미시화되는 양상은 윌리엄과 진청의 관계에서도 확인된다. 원작의 윈텐밍은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내성적이어서 대학 신입생 시절 먼저 말을 걸어준 청신에게 한눈에 반한다. 하지만 이후 두 사람은 점점이 전혀 없이 살아가고, 암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윈텐밍은 후원에게 받은 돈으로 별을 사서 청신에게 몰래 선물한 뒤, 안락사 직전 찾아온 청신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뇌를 우주선에 실어 보내는 계단 프

---

전 우주로 발사해 초고위 문명에 의해 모두가 공멸한다는 위협을 하고, 삼체인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잠정적 휴전 상태가 마련된다. 이 신호 발사 스위치를 쥔 사람을 검잡이라 하고, 60여년 후 청신은 뒤통이를 찌는 2대 검잡이가 된다. 하지만 삼체 위기 속에서 고통 받는 어린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청신의 심리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던 삼체인은 그녀가 발사 스위치를 누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검잡이 역할이 이양되자마자 공격을 재개한다. 오랜 시간 인류를 지킨 고독한 영웅처럼 느껴지는 뒤통이와 달리 망설임 끝에 인류의 위기를 초래하는 청신은 현실의 독자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크다. 하지만 원작의 우주적 관점에서는 그런 가치 평가가 큰 의미가 없고(김미정, 앞의 글, 135쪽), 이런 원작의 특성을 이해하면 청신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물로, 일종의 반면교사적 대상으로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박민호(b), 앞의 글, 251쪽).

40) 에이드리언 리치,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김인성 역, 평민사, 2018, 46쪽 참조.

로젝트에 참여한다. <삼체>의 윌리엄은 대학 동문인 진청을 오랜 시간 짝 사랑해왔고, 진청 역시 그런 윌리엄의 감정을 어느 정도 눈치 채고 있었지만, 윌리엄이 고백을 하지 않아 두 사람은 줄곧 친구 관계로만 지낸다. 윌리엄은 암에 걸린 후 잭에게 받은 돈으로 별을 산 뒤 진청에게 몰래 선물하고, 에반스가 알려준 계단 프로젝트에 자원한다.

언뜻 보면 유사한 듯 보이지만 두 사람의 관계와 행동 동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 먼저 원작 윈텐밍의 감정은 일방적이다. 순수한 사랑으로 포장되어서 그렇지 잠시 대화만 나누었던 여성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수소문하고 직장에까지 찾아가며 상상하기 힘든 고가의 선물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면 스토킹이나 다름없는 행동들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신이다. 그녀는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별을 선물 받았을 때 윈텐밍을 전혀 떠올리지 못한다. 윈텐밍에게는 청신과의 만남이 강렬한 첫사랑의 기억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단 프로젝트에 실어 보낼 뇌를 찾던 청신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윈텐밍의 사정을 우연히 알게 되자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위웨이민 부국장을 찾아가 윈텐밍을 후보로 추천”<sup>41)</sup>하고 안락사를 부탁한다. 물론 청신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가 윈텐밍의 상황을 이용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윈텐밍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 이처럼 윈텐밍은 짝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인류를 위한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처연한 심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물이다.

반면 <삼체>에서는 윌리엄의 감정이 일방적이지 않다. 상술했듯 진청도 어느 정도는 그 감정을 눈치 채고 있는 상태고, 원작에서 윈텐밍의 심리가 매우 간략히 묘사되는 것에 비해 <삼체>에서는 윌리엄의 심리가 매우 깊

41) 류츠신, 『삼체 3부 사신의 영생』, 108쪽.

이 있게 반복적으로 묘사된다. 즉 선불리 고백했다가 친구관계마저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현재 애인이 있는 진청에게 민폐일지도 모른다는 걱정, 시한부여서 동정을 사지 않을까 하는 좌절 등등 윌리엄의 애뜻한 심리가 짙진하게 그려져 시청자의 공감을 유도한다. 무엇보다 원작 청신과 달리 진청은 계단 프로젝트에 자원하는 윌리엄을 말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가 최종 선발이 되지 않도록 애를 쓴다. 원작 청신처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삼체> 윌리엄은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후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사랑을 되새기던 중 그 상대방이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원작과 오랜 짝사랑이 끝나고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후 이뤄지는 자발적 희생의 <삼체>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전자는 집단적 차원에서의 강요와 희생양 문제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주의의 폭력 문제로 이어진다.<sup>42)</sup> 그렇지만 후자는 사랑의 낭만성을 강조함으로써 희생에 덧붙여질 수 있는 정치적 의미를 모두 불식시키고 윌리엄을 이상화/영웅화하게 된다. 계단 프로젝트에 실린 윈텐밍/윌리엄의 뇌가 훗날 삼체인에 의해 복원되고 그에 의해 지구의 마지막 희망이 제시되는 원작 3부의 내용을 감안하면, 이 역시 모든 서사적 동력을 윤리적 차원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랑의 고결함과 희생의 숭고함이 태양계 멸망이라는 우주적 재난에 맞서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냉혹한 현실주의와 윤리의 길항 속에서 윤리의 양가성을 보여주는 원작<sup>43)</sup>에 비해 <삼체>는

42) 르네 지라르, 『희생양』, 김진식 역, 민음사, 2007, 7-41쪽 참조. 덧붙여 원작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사랑으로만 해석되지 않는 만큼 결말에서도 윈텐밍이 청신이 아닌 그녀의 동료 'AA'와 맺어진다.

43) 박민호(a), 앞의 글, 133-135쪽.

모성, 사랑, 희생 등 전통적 윤리의 실천을 신화화하는 이야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리하면 <삼체>는 현실 정치 맥락에서의 해석 가능성을 거의 남겨두지 않는다. 다양한 정치 형태 및 철학에 대해서는 향후 시점에서 다뤄질 수도 있지만 현실 중국을 위시한 여러 논란으로부터는 자유롭다는 것이다. 그 목적을 검증할 수는 없으나 미중 패권 다툼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넷플릭스 서비스 여부와는 별개로 중국 시청자의 평가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떠올렸을 때 이는 글로벌 대중예술콘텐츠로서 대중의 반감을 최소화하려는 넷플릭스의 안전 지향 전략으로 읽힌다. 한편 윤리적 측면에서는 존재성/인간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기보다 기존의 도덕 윤리를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 어머니/여성의 모성, 사랑의 위대함, 희생의 숭고함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이는 위기를 극복하는 기제로써 존재하는 바, <삼체>는 전통적인 도덕/윤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보수적 색채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로 인해 다음 장에서 살펴볼 균열의 가능성이 배태된다.

#### 4. 서구 중심적 기획과 넷플릭스의 글로벌 전략

2장에서 논했듯이 <삼체>의 서사 전략은 캐릭터를 재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를 통해 방대하고 복잡한 서사가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되었고 주제적 측면에도 다소의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핀 이러한 방식은 또 다른 측면에서 논구될 여지가 있다.

먼저 캐릭터 재편의 이면을 보자. 2장의 <장면 1, 2>에서 알 수 있듯이

<삼체>에서 원작의 남성 왕따오는 여성 오기로, 중국인 튀지는 미국 흑인 사울로 변경되었다. 주변 인물도 마찬가지다. <삼체>의 '클래런스 시'(원작 스창)의 아들 '레지'(원작 스샤오밍)에게는 원작에 없던 동성애자라는 설정이 추가되었고, 원작에서 4명의 남성 면벽자는 <삼체>에서 2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성별, 피부색, 성적 지향의 설정 변경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이하 PC주의)'이 그것이다.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직업 등에 관한 편견과 차별을 지양하는 신념, 혹은 사회적 운동을 지칭하는 PC주의는 최근 대중문화의 트렌드 중 하나이자 뜨거운 논쟁거리이다. 콘텐츠에 반영된 PC주의가 대중의 평가와 직결<sup>44)</sup>되고, 과도한 PC주의로 인한 작품성의 훼손이 지적<sup>45)</sup>되는 등 문화적 살균<sup>46)</sup>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PC주의는 19세기 영국 귀족사회를 배경으로 한 원작을 흑인과 백인이 공존하는 사회로 각색해 논란이 불거진 사례<sup>47)</sup>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넷플릭스 콘텐츠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삼체>의 캐릭터 재편 전략은 PC주의의 명과 암을 동시에 보여준다.

44) 한송희·이효민, 「영화와 '정치적 올바름'에 관한 논쟁 : <캡틴 마블>과 <어벤져스: 엔드게임>, <인어공주>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28권 제2호,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20, 30-45쪽.

45) 진성희, 「'정치적 올바름' 주의와 변종 MCU의 탄생 -영화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을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 제65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21, 209-212쪽.

46) 문형준, 「정치적 올바름과 살균된 문화」, 『비교문학』 제73권, 한국비교문학회, 2017, 124-125쪽.

47) 조미희, 「넷플릭스 체제와 허구세계의 진리 -《브리저튼》시리즈를 중심으로」, 『국제언어문학』 제56호, 국제언어문학회, 2023, 165-167쪽.



〈장면 9〉



〈장면 10〉

〈장면 9〉는 오기가 나노 기술 개발 포기를 선언하자 투자자인 ‘데니스 폴록’이 연구 지속을 종용하는 상황이다. “이런 말까지 하긴 싫었지만 명심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당신 영주권을 보증한다는 거. 일도 안 하는데 취업비자로 이 나라에 있을 수 없다고.”(3회)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오기는 외국 이주민이고 영국 사회에서 제대로 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다. 이처럼 〈삼체〉는 인종/국가/성별 등에 대한 사회적 모순과 편견을 반복적으로 폭로한다.<sup>48)</sup> 한편 〈장면 10〉은 원작의 여러 인물들이 합쳐진 웨이드의 특징이 드러나는 상황(5회)이다. 초국가적 조직인 PDC의 수장인 그는 백인 남성이고, 늘 최고급 양복을 격식에 맞게 입으며, 영국식 악센트를 구사하고, 모든 사람들을 고압적으로 대하는 등 영국 최상층 귀족 계급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준다.

물론 어떤 캐릭터가 주류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바로 편견과 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캐릭터의 극적 기능이다. 그런데 기반이 된 여러 인물들이 원작에서는 사실상 큰 비중이 없는 것과 달리 〈삼체〉의 웨이드는 주인공들을 영입/설득/지휘할 뿐 아니라 파나마 작전과 면벽 프로젝트까지 구상해내는 핵심적인 캐릭터로 변화한다.<sup>49)</sup> 또한 지자가 혼자 있는 웨이드에게 접촉해 그의 대응을 비웃는 상

48) 신경과에 다녀온 오기에게 진청이 “의사는 만났어? 그 남자가 뭐래?”라고 묻자 오기가 “여자야.”(1회)라고 대답하는 상황에서도 PC주의가 드러난다.

황(8회)이 추가되어 삼체 문명 역시 웨이드를 자신들의 가장 큰 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암시된다. 성별, 인종, 국가, 계급 등의 측면에서 주류적 요소가 집대성된 웨이드가, 타자 삼체에 맞서는 우리 인류의 이야기로 재구성된 <삼체>에서 인류를 이끄는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협소화되었던 원작의 정치적 의미망은 굴절된 방향으로 재생성된다. 원작이 중국 민족주의 반영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비단 중국(인) 중심의 이야기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지구공동운명체 개념과 맞닿기 때문이다.<sup>50)</sup> 물론 이때의 지구공동운명체는 어디까지나 중국 중심이라는 단서가 붙는 것이고, 중국몽/일대일로와 같은 개념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sup>51)</sup> 그런 점에서 <삼체>는 국적, 성별, 인종 등을 다변화해 서로 다른 인류가 하나로 뭉쳐 위기에 맞선다는 공동체적 관점을 보여주지만, 그것은 중국을 서구로 바꾸었을 뿐 결국은 지구공동운명체 개념의 반복에 불과하다. 문화적 다양성<sup>52)</sup>을 통해 탈중심을 지향하는 듯 하지만 여전히 중심이 존재하고 있고, 중국의 부상에 대한 서구권의 위기의식 및 패권 탈환 욕망 등과 같은 정치적 의도가 은밀하게 내재해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발생하는 또 다른 균열은 휴머니즘과 과학주의의 길항이다. 주지하듯 원작은 우주적 관점에서 상이한 입장과 가치들을 두루 보여줌으로써 여러 화두를 던진다는 특징이 있고, 이는 과학과 관련된 인간성

49) 원작에서 ETO의 본부인 심판일호를 나노 섬유로 공격하는 파나마 작전은 스창이 아이디어를 내고, 면벽 프로젝트는 UN에서 구상/시행한다.

50) 박정영, 앞의 글, 87-88쪽.

51) 박남용, 앞의 글, 190쪽.

52) 다양성에 대한 추구는 최근 넷플릭스를 위시한 글로벌 대기업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이다(김민준·유승호, 「글로벌 콘텐츠기업의 ESG 적용 사례 연구 - '넷플릭스', '디즈니', '블리자드'의 다양성 전략을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제26권 2호, 한국문화경제학회, 2023, 216-219쪽 참조).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예컨대 계단 프로젝트에서는 안락사와 관련한 존엄성 문제, 뇌를 기반으로 복원시킨 인간의 동일성 문제 등이 화두로 제시되고,<sup>53)</sup> 면벽자 중 한 명에 의해 시도된 멘탈 스탬프는 기술주의의 모순, AI와 인간의 자율성 문제를 상기시킨다.<sup>54)</sup> 쉽게 말해 과학기술의 발전을 상상하면서 인간의 존재성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 것인데, 구도에서 알 수 있듯이 방점은 어디까지나 후자인 인간의 존재성에 찍힌다.

그렇지만 <삼체>에서는 인간의 존재성 문제보다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이 보다 두드러진다.



<장면 11>



<장면 12>

<장면 11>은 ETO의 본부 심판일호가 파나마 운하를 지나던 중 나노 섬유를 이용한 PDC의 공격에 파괴된 후 숨진 어린 아이의 발목을 오기가 목도하는 상황(5회)이다. 오기는 인류의 발전을 위해 개발한 자신의 기술이 살상무기로 사용되자 좌절해 한동안 폐인처럼 지내게 된다. <장면 12>는 결국 PDC를 떠난 오기가 낙후된 제3세계에서 나노 기술을 활용해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보급하는 상황(8회)이다.

위와 같이 <삼체>는 오기의 고뇌를 통해 과학기술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듯 하지만 다음을 고려해 독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2장에서 언급했던 <삼

53) 박정영, 앞의 글, 58쪽.

54) 손주연, 앞의 글, 245-248쪽.

체)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가 있다. <삼체>는 우리 인류의 위기 상황을 우리 인류의 입장에서 그리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오기의 고뇌에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 옥스퍼드대 친구들이 오기를 친구로서 위로하기만 할 뿐 파나마 작전 자체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기의 고뇌는 작품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이상주의로 비춰진다. 다음으로 <장면 12>가 원작에는 없던 내용이라는 점이 있다. 과학기술의 긍정적 측면이 추가되었다는 것인데, <삼체>가 캐릭터 재편을 통해 서구권의 욕망을 은밀히 드러내는 작품임을 상기해보면, 허물어져가는 판자촌의 우물에 나노 여과기를 설치하는 위 상황은 근대 식민지 시기 주창되었던 문명의 전파, 후진국에 대한 서구 열강의 제도 및 선민의식으로 읽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러한 정치적 측면에서의 해석은 향후 시즌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져야겠지만, 적어도 현재까지의 <삼체>가 과학의 양면성보다는 이상적 측면에 쏠려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시 말해 <삼체>는 과학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게 사용되었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상적/낙관적인 과학관을 기저에 깔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삼체>의 과학관이 ‘이성적으로 통제된 과학은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원작 작가 류츠신의 과학관<sup>55)</sup>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삼체>가 캐릭터 재편 과정에서 원작에는 없던

55) 류츠신의 과학관은 유년 시절의 경험에 기인한다. 1963년 북경에서 태어난 류츠신은 문화대혁명 당시 친척이 국민당에 입당했다는 이유로 하방되어 하남성에서 성장했다. 유년기의 인상적인 기억에 대해 류츠신은 두 가지를 회고하는데, 하나는 1970년 중국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 장면을 본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여 만 명이 죽은 1975년 하남성 대홍수 경험이다. 과학기술은 우주로 향할 정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바로 곁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아이러니가 그의 이상주의적 과학관을 형성한 것이다(서묘연, 앞의 글, 32-37쪽).

류츠신의 이력을 반영했다는 점<sup>56)</sup>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원작 작가에 대한 존중 측면에서 그의 사상을 수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원작과 〈삼체〉의 간극은 너무나도 크다. 주지하듯 원작은 기본 과학 원리와 윤리조차도 우주적 측면에서 재조명해 과학기술의 이상성만을 단순하게 부각하지 않는다. 그만큼 과학기술을 통해 위기가 극복되는 〈유랑지구〉와 같은 류츠신의 다른 SF작품과는 결이 전혀 다른 작품이다. 그러므로 〈삼체〉의 이상주의적 과학관은 류츠신 스스로도 사상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공언<sup>57)</sup>한 영미권 SF소설, 그 안에 녹아들어있는 인간 중심 자연관과 근대적 진보주의를 반영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이를 통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문화적/국가적 컨버전스 양상<sup>58)</sup>을 확인할 수 있는데, 원작에는 없던 이러한 과학관이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에서, 그것도 서구 중심주의가 은밀하게 작동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예원제의 죽기 전 행동이다. 원작에서 예원제는 뤼지에게 우주사회학의 두 가지 공리, “생존은 문명의 첫 번째 필요조건이다, 문명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되지만 우주의 물질 총량은 불변한다.”<sup>59)</sup>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이는 문명 간 멸망 전으로 인해 전 우주가 저차원화되면서 종말에 이르고 있다는 3부의 우주적 재난을 설명하는 복선이 된다. 그런데 〈삼체〉의 예원제는 우주사회학의 공리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신의 연주에 끼어들지 말라.”(7회)는 대사로 요약되는 농담을 한다.

56) 상술한 류츠신의 유년기 대홍수 경험은 〈삼체〉의 진청이 어린 시절 중국 호북성에서 대홍수를 겪어 부모를 잃고 뉴질랜드로 이주했다는 설정(3회)에 반영되었다.

57) 박정영, 앞의 글, 36-42쪽.

58) 이재현, 『디지털 시대의 읽기 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68쪽.

59) 류츠신, 『삼체 2부 암흑의 숲』, 허유영 역, 자음과 모음, 2020, 17-18쪽.

물론 향후 시즌에서 이 상황이 어떤 의미를 지닐지는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원작의 뒷내용을 감안하면 위 농담은 인류의 오만을 광대한 우주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경고성 메시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원작의 핵심과 결말을 관통하는 대화가 <삼체>에서는 전혀 다른 대사로 바뀌었고, 원작에서의 비증을 감안하면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예원제의 농담은 우주에는 보다 고차원적인 것이 있고, 그것은 범인의 이해 범주를 초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자 그대로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를 작중에서는 경고성 메시지로 읽히지만 이 장에서 살핀 균열적 가능성 측면에서는 또 다른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삼체>는 원작의 중국적 색채를 모두 거세하고 그것을 세계적인 것으로 포장했지만, 그 속에는 서구 중심주의, 더 정확히는 근대 서구적 가치의 복원 의도가 존재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이 근대 서구의 이념을 비판하지만 정작 서구의 물질 토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는 이글턴의 지적<sup>60)</sup>처럼 <삼체>가 서구 중심주의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 그에 대한 비판을 불허하는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로부터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의 이면을 엿볼 수도 있다. 각종 서사 전략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에게 별다른 어려움이나 불편함 없이 두루 수용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자연스러운 수용 과정에서 이념, 윤리, 과학 등 기존의 전통적인 질서가 다시금 각인된다. 문화적 다양성과 고유성이 결국은 보편성으로 회귀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sup>61)</sup>의 일환인 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넷플릭스는 비디오 대여로

60) 테리 이글턴, 『포스트모더니즘의 환상』, 김준환 역, 실천문학, 2000, 11쪽.

61) 한승우, 「드라마 <파친코>에 드러난 글로벌리즘의 전략」, 『한국연구』 제12호, 한국연구원, 2022, 27쪽.

시작해 콘텐츠 증개로 발전, 이제는 자체적인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역사를 떠올리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삼체>는 기존의 질서/이념을 복원함으로써 대중영상예술계를 선도하고자 하는 넷플릭스의 전략적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 할 것이다.

## 5. 나가며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삼체>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동명의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다. 하지만 영상화 시에는 상당한 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본고는 <삼체>가 이러한 원작을 성공적으로 재창조한 작품이라는 관점에서 그 변주 방식과 주제적 의미, 그리고 파생되는 효과에 대해 논구하였다.

<삼체>의 서사 전략은 캐릭터를 재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 시공간에 산포되어있던 인물들을 지금 여기에서 상호 관련되는 캐릭터들로 응축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물의 복합적인 심리가 정형화되고 사건 구성이 직접적/당위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하도록 변화하면서 시청자의 작품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진다. 이러한 캐릭터와 구성 방식의 변화를 통해 <삼체>는 인류와 외계인, 우리와 타자라는 이분법적 이야기로 재구성된다.

이렇게 각색된 <삼체>는 원작의 주제적 의미, 특히 정치성과 윤리성의 측면에서 달라진다. 먼저 국가/조직의 역할 및 상징성이 약화되고 그것이 개인 차원으로 환원됨으로써 원작에서 두드러졌던 중국적인 것에 대한 논

란을 의도적으로 피해간다. 이는 현실에서의 정치적 의미망을 협소화하여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소구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다음 윤리적 측면에서는 원작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모성, 사랑, 희생과 같은 전통적인 도덕 윤리가 다시금 부상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단순하게 설파되는 것이 아니라 서사를 이끌어가는 기본 동력으로 기능, 결국 <삼체>는 전통적 도덕 윤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수적 성향을 띠게 된다.

이를 통해 <삼체>는 새로운 논란의 가능성이 생긴다. 캐릭터 재편 과정에는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하는 PC주의가 적용되는 가운데 특정 국가, 인종, 성별, 계급을 부각시키려는 시도와 중국적인 것을 서구적인 것으로 대체/복원하려는 욕망이 존재한다. 같은 맥락에서 원작과 달리 과학기술의 이상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인간성에 대한 천착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근대적 진보주의가 부상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삼체>는 이러한 서구 중심적 기획의 단서를 남긴 채 일단락된 상태다.

21세기 대중영상예술시대의 콘텐츠는 국가와 문화권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소구되어야 한다는 숙명에 놓여 있다. 그런 점에서 호불호가 작용할 수 있는 원작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문화계의 트렌드를 수용하는 한편 일정 부분에서는 원작 작가의 이력을 반영해 최대 다수의 최대 만족을 추구한 <삼체>의 전략은 충분히 성공적이었다 할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서사 전략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파생된 균열의 가능성은 향후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상술했듯 <삼체>는 누구에게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게끔 재창조되었는데, 그 안에는 기존 세계 질서로의 회귀 욕망과 서구 중심주의가 녹아들어있다. 뒤집어 보면 오히려 익숙한 선악 대립 구도와 영웅 서사, 전통적인 사랑과 희생의 윤리, 서구 중심주의 등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자연스럽게 쉽게 수용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무수히 반복되었던 문화적 코드와 그것의

내면화를 기본 전제로 한 서사 전략이라는 뜻이다.

이는 글로벌 콘텐츠의 양면성, 혹은 이중적 조건<sup>62)</sup>이라고 말해지는 것이지만, 인간과 예술의 본원적 관계에 대한 화두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특별하고 낯설고 새로운 것을 예술로서 인식하고 고평가해왔다. 그렇지만 문자 그대로 무수히 많은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역설적으로 상투성이 예술의 제1조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삼체> 서사 전략의 기본 전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주체의 내면화된 세계 인식을 위배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감을 선사하고, 범람하는 콘텐츠로 인해 피로한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 안정감이 선호될 수 있다. 플랫폼이 더욱더 다양해질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예술이 이러한 상투성과 안정감의 순환 사이에 영원히 갇혀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예술을 통한 주체의 자기 인식 및 세계 인지<sup>63)</sup> 역시 고착되는 것은 아닐까.

물론 본고에서는 현재 시즌 1까지만 공개된 <삼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서사 전략을 살펴보는 데에 주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논점에는 미처 접근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원작 2, 3부의 이야기가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만큼 향후 시즌에서는 지금까지에 비해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사실이다. 그 변화 양상을 계속 추적하면 본고에서 논구한 서사 전략의 타당성이 다시금 검증되고,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논점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

62) 강혜원·이성민, 「넷플릭스의 초국적 콘텐츠 소구 전략: <오징어 게임>에 나타난 장르적 보편성과 문화적 특수성의 이중적 상품화 구조 분석」, 『언론과 사회』 제30권 3호,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22, 36쪽.

63) 박상완, 「텔레비전드라마 '프로듀사'의 극중극에 관한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4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8, 195쪽.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데이비드 베니오프 외 극본, 앤드루 스탠튼 외 연출, <삼체>, 총 8부작, 2024.03.31. 공개.  
류츠신, 『삼체 1부 삼체문제』, 이현아 역, 자음과모음, 2020.  
\_\_\_\_\_, 『삼체 2부 암흑의 숲』, 허유영 역, 자음과모음, 2020.  
\_\_\_\_\_, 『삼체 3부 사신의 영생』, 허유영 역, 자음과모음, 2020.

### 2. 논문과 단행본

- 강혜원·이성민, 「넷플릭스의 초국적 콘텐츠 소구 전략: <오징어 게임>에 나타난 장르적 보편성과 문화적 특수성의 이중적 상품화 구조 분석」, 『언론과 사회』 제30권 3호,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22, 5-41쪽.
- 김미정, 「류츠신의 <삼체> 읽기 - '과학'과 '문학'의 상호관계」, 『중국어문학』 제89권, 영남중국어문학회, 2022, 121-148쪽.
- 김민준·유승호, 「글로벌 콘텐츠기업의 ESG 적용 사례 연구 - '넷플릭스', '디즈니', '블리자드'의 다양성 전략을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제26권 2호, 한국문화경제학회, 2023, 205-232쪽.
- 르네 지라르, 『희생양』, 김진식 역, 민음사, 2007.
- 문형준, 「정치적 올바름과 살균된 문화」, 『비교문학』 제73권, 한국비교문학회, 2017, 103-128쪽.
- 박남용, 「중국 SF소설의 과학기술과 문학적 상상 연구」, 『중국인문과학』 제80권, 중국인문학회, 2022, 189-208쪽.
- 박민호, 「류츠신의 <삼체>를 통해 본 정치적 알레고리와 윤리의 아이러니」, 『중국문화연구』 제72집, 한국중문학회, 2018, 123-141쪽.
- \_\_\_\_\_, 「류츠신 『삼체』 속 정치적 의미망」, 『한중언어문화연구』 제69집, 한국중국언어문화연구회, 2023, 237-255쪽.
- 박상완, 「텔레비전드라마 '프로듀사'의 극중극에 관한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4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8, 163-203쪽.

- 박정영, 「류츠신의 과환소설 『삼체』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박정훈, 「류츠신 『삼체』의 니힐리즘적 세계관 고찰」, 『중국연구』 제86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21, 25-42쪽.
- 서묘연, 「류츠신의 『삼체』와 배명훈의 『신의 궤도』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손주연, 「중국 SF의 포스트휴머니즘적 문학 상상 - 류츠신 『삼체』를 중심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 제65집, 한국중국언어문화연구회, 2022, 233-260쪽.
- 에이드리언 리치,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김인성 역, 평민사, 2018.
- 이재현, 『디지털 시대의 읽기 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 조미희, 「넷플릭스 체제와 허구세계의 진리-《브리저튼》시리즈를 중심으로」, 『국제언어문학』 제56호, 국제언어학회, 2023, 151-172쪽.
- 진성희, 「'정치적 올바름' 주의와 변종 MCU의 탄생 -영화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을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 제65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21, 195-216쪽.
- 테리 이글턴, 『포스트모더니즘의 환상』, 김준환 역, 실천문학, 2000.
- 한승희·이효민, 「영화와 '정치적 올바름'에 관한 논쟁 : <캡틴 마블>과 <어벤저스: 엔드 게임>, <인어공주>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28권 제2호,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20, 5-71쪽.
- 한승우, 「드라마 <파친코>에 드러난 글로벌리즘의 전략」, 『한국연구』 제12호, 한국연구원, 2022, 7-31쪽.

### 3. 기타자료

- 최윤나, <‘오징어 게임2’→‘지옥2’·‘진,란’…2024 넷플릭스 라인업 공개>, 『동아닷컴』, 2024.02.06., <https://v.daum.net/v/20240206091128451> (검색일: 2024.08.13.)
- Loree Seitz, <‘3 Body Problem’ to End With Season 3 on Netflix>, 『THE WRAP』, 2024.05.31., <https://www.thewrap.com/3-body-problem-ending-season-3-netflix> (검색일: 2024.08.13.)

## Abstract

### A Study on Narrative Strategy of Netflix's Original Drama <3 BODY PROBLEM>

Park, Sang-Wan(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discusses the variations, thematic implications, and derivative effects of Netflix's original drama <3 BODY PROBLEM> from the perspective of its successful reimagining of the novel of the same name.

First, <3 BODY PROBLEM> reorganizes the original characters, who were scattered across a vast expanse of space and time, into a group of interrelated characters in the present. In the process, the characters are stereotyped, the plot is simplified, and the conflict is reorganized into familiar binary oppositions of humanity vs aliens and us vs others. It's a crowd-friendly attempt to lower the barrier of entry to the complex original story and increase viewer comprehension.

The thematic implications of this adaptation are also different from the original. On the political side, this drama avoids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real-life China that were raised in the original by emphasizing individuals rather than countries/organizations. On the ethical side, this drama uses moral ethics such as motherhood, love, and sacrifice as the driving force of the narrative, re-emphasizing their necessity and importance. This change, which emphasizes traditional ethics at the expense of de-politicizing them, can be read as part of a strategy to appeal universally to a global audience with diverse values.

But, this narrative strategy in <3 BODY PROBLEM> can be revisited in other ways.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the characters, attempts are made to promote cultural diversity, but there is a desire to restore the Western-centered world order. In addition, the idealized aspect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emphasized, and the modern progressive worldview is more prominent than the naturalization of

254 대중서사연구 제30권 3호

humanity. The Western-centered planning of the <3 BODY PROBLEM> requires further research on the essential nature of global content.

(Keywords: <3 BODY PROBLEM>, Netflix, Drama, Political Correctness, Glocal, Politics, Ethics, Adaptation)

논문투고일 : 2024년 8월 26일  
논문심사일 : 2024년 10월 14일  
수정완료일 : 2024년 10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4년 10월 18일